

22장.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22-27장에서는 논쟁의 삼 회전이 전개된다. 여기에서는 엘리바스와 빌닷이 이야기하고 소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두 친구의 이야기는 짧아지고 욥의 대답은 더 길어진다.

엘리바스는 첫째 발언에서는 점잖게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종용하였고(4:17-19), 두 번째 발언에서는 조금 더 격앙된 표현으로 지적하였는데(15:14-16), 마지막 발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원칙적인 발언을 한 후에(22:1-5) 부유한 지주가 범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죄목들을 열거하고(22:6-11), 악인의 운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후에(22:12-20) 회개를 촉구한다(22:21-30).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22:1-5)

엘리바스는 세 가지 수사학적 질문으로 말을 시작한다.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혜자도 자기를 위하여 유익하게 한다고 한다. ‘사람의 의로움이 전능자에게 기쁨이 되겠느냐?’ 하면서 욥의 행위가 온전하여도 하나님께 무익하다고 한다. 셋째 질문은 형식이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문하심은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나?’ 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한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그의 죄악을 책망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욥이 구체적으로 범하였다고 생각하는 죄들을 열거하다 (22:6-11)

엘리바스는 형제의 물건, 헐벗은 자의 옷을 전당물로 취한 후에 돌려주지 않았고 간히거나 주린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서 부를 축적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욥이 그렇게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기 때문에 올무가 그의 주위를 두르고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빛 대신 어둠이 임하고 홍수가 그를 덮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 주었다.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았으나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하여서 그가 ‘추정한’ 죄들을 열거하면서 그의 불행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이어간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22:12-20)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높이 계심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과 욥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 욥은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고 구름이 그분을 가리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22:13-14). 지존자에게 지식이 없다는 것은 시편 73:11에 나오는 악인의 관점인데, 엘리바스는 욥이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 한다고 비판한다. 악인이 전능자를 무시하지만 여호와께서 악인을 끊어내시고 남은 것은 불사르는 심판을 시행할 것이고, 그때에 의인은 기뻐한다고 하였다.

회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22:21-30)

엘리바스는 이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엘리바

스의 이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권하는 것이 된다. 그들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탄의 논리와 일치한다.

엘리바스는 욥이 받을 복을 네 가지로 말한다. 첫째, 욥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기면, 전능자가 그의 보화가 되고, 욥이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 것이라고 하였다(22:23-24). 둘째, 전능자와 관계가 회복되면 욥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22:25), 셋째, 욥이 경영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지고 그의 길이 밝게 될 것이다(22:26). 넷째, 욥의 기도로 다른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22:29)는 구절은 30절의 중보 기도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가 낮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높이지리라’ 하고 기도하면 죄인도 욥의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의 기도로 엘리바스가 구원을 받는 사실을 읽는다(42:7-9).

묵상과 실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두 가지 이해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에게 경건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22:4). 2-3절의 두 질문에서는 욥의 지혜와 의로움을 낮추어서 이야기하다가 셋째 질문에서는 욥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심문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죄로 지목하실 만한 것을 나열한다. 욥이 부자가 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독자는 욥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욥의 경건함은 여호와께서 사탄 앞에서 인정해 주신 사실이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엘리바스는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죄악을 지적해 내시고 어려움을 주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다. 엘리바스는 부유한 지주가 범했을 가능성이 있는 죄들을 열거하면서 욥의 비참함이 자신이 ‘추정하는’ 그러한 죄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재산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악을 행하여서 곤경에 처하였는데 이제 돌이키면 다시 복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데에서 엘리바스의 생각이 ‘인과응보’에 기초한 것임을 본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생각에 간혀서 여호와께서 그의 경건함을 인정해 주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게 된다.